

# 반쪽 IT 강국, IT 서비스업 육성해야<sup>1)</sup>

임상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appylims@hri.co.kr

## I. IT 산업의 현황

### 1. IT 산업 발전의 한계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세계적 수준의 IT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IT 산업은 발전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T 산업의 생산 및 수출 그리고 국제경쟁력지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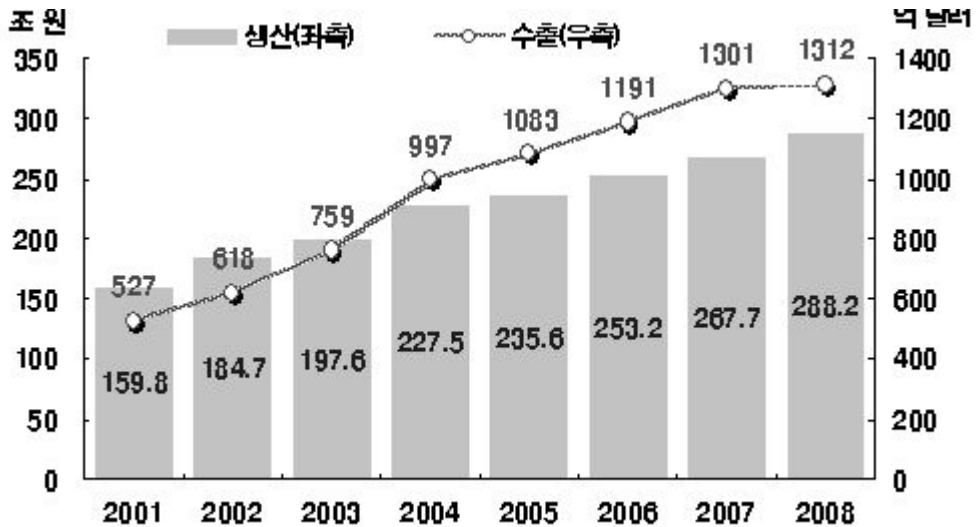
먼저 IT 산업의 생산과 수출을 분석한 결과, IT 산업의 지속 발전은 불투명하다. IT 수출은 2001년 527억 달러에서 2008년 1,312억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08년 IT 산업의 생산 역시 2001년의 160조 원보다 80.4% 증가한 288조원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수출 증가로 IT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0.1%에서 2007년 16.9%로 6.8%p 상승했다. 이처럼 IT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IT 산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농경제학과)
- 삼정 KPMG S. Senior.
- 영화산업 발전 방안, 서비스 수지 적자의 원인 및 개선과제, 환율 및 유가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

1) 본 페이퍼는 한국IT서비스학회 '2009 추계학술대회'의 "IT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불균형적인 IT산업, IT서비스업 육성하자"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IT산업의 생산과 수출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어 지속 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IT산업의 전년대비 생산 증가율은 2002년 15.6%에서 2005년에는 3.6%로 급락했으며, 2006년 이후 한 자리 수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IT산업의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역시 2004년 31.4%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0.8%로 급락했다. 이러한 수출 및 생산 증가율의 하락은 향후 IT산업의 지속 발전이 어렵다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IT통계포털,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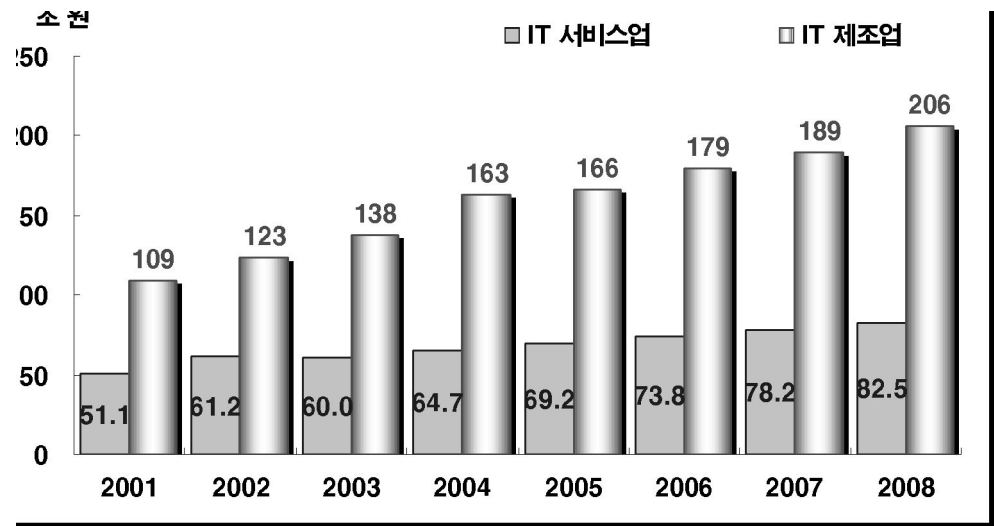
[그림 1] IT산업의 생산 및 수출 추이

또한 IT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한국의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도 67.2로 3위, 2008년도 64.1로 8위, 2009년도 62.7로 16위를 기록하였다. EIU는 이처럼 한국의 IT산업 경쟁력 지수가 하락한 것은 IT 인프라와 IT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문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한다. WEF(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 역시 한국의 IT산업 경쟁력은 2007-08년도 5.43으로 9위를 기록했으나, 2008-09년도 5.37로 11위를 기록하여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WEF의 부문별 ICT 산업 경쟁력을 살펴본 결과, 환경 부문만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준비성과 활용도 차원에서 모두 하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2. IT 산업 발전 한계의 원인

이와 같은 IT산업 발전의 한계는 산업 내 불균형 성장, 투자 감소, Control Tower 부재 등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IT 제조업에 비해 IT 서비스업의 발전이 더디다. IT 서비스업은 IT 제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요한다는 점과 IT 제조업 부문에 대한 신상품 니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IT 제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반해 IT 서비스업의 발전은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IT 서비스업과 IT 제조업 간 생산을 비교한 결과, IT 서비스업의 생산은 양적인 면에서나 성장 속도 면에서나 IT 제조업에 비해 뒤처져 있다. 2008년 IT 제조업의 생산은 206조 원으로 IT 서비스업의 82.5조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IT 제조업이 연평균 9.5%씩 증가하는데 반해, IT 서비스업의 생산은 연평균 7.1%씩 증가했다. 이로 인해 IT 서비스업과 IT 제조업 간 생산 규모 차이는 2001년 57.7조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123.1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IT 제조업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 비해 IT 서비스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IT 제조업 중 반도체, 휴대전화, LCD의 2007년 기준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45.1%, 23%, 46.5%를 기록한데 반해 IT 서비스업 중사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자료: IT통계포털,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그림 2] IT 서비스업 및 IT 제조업의 생산 추이

둘째, IT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IT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3년 이후 증가하여 2004년에는 32조 원으로 정점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26.2조 원, 2006년 22.6조 원, 2007년 14.8조 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IT산업의 비중은 2004년 25%로 가장 높았으나 2005년 22.6%, 2006년 21% 그리고 2007년에는 14.1%로 급락했다. 또한 IT 제조업에 대한 설비투자 계획은 2005년 이후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 및 전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IT 제조업의 설비 투자 비중 역시 급락했다. IT 제조업에 대한 설비투자 계획은 2004년 22.4조 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08년에는 20조 원 그리고 2009년에는 10.1조 원으로 급감했다.

셋째, IT 산업의 장기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는 Control Tower가 부재하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IT 산업 발전을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한 정보통신부는 해체되어 일부 업무들이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다. 2008년 2월 20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사이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타결되어 정부는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업무 중 콘텐츠 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소프트웨어 및 IT 제조업은 지식경제부로, 정보통신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IT 산업을 총괄하는 control tower가 없어졌다. Control Tower 부재는 IT 산업의 장기 발전 전략 부재에 따라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낮추었다. 이러한 장기 정책 부재는 정책의 우선순위 및 중복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IT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녹색성장으로서의 IT 발전 정책,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IT 발전 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난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IT 산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정부 예산 마련 역시 어렵게 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심해졌다. 2009년 3월 19일자 매일경제 신문에 따르면 선진국은 IT 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데 반해 한국은 줄여 IT 코리아의 동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했다.

### 3. IT 산업 발전의 방향

정부는 IT산업 발전을 위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게 IT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IT 코리아 5대 미래 전략’을 추진하는 등 투자 Control Tower 부재 및 투자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 간 불균형 성장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IT 제조업 발전과 함께 IT 서비스업의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 II. IT 서비스업의 문제점

이와 같이 IT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IT 서비스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IT 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은 3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글로벌화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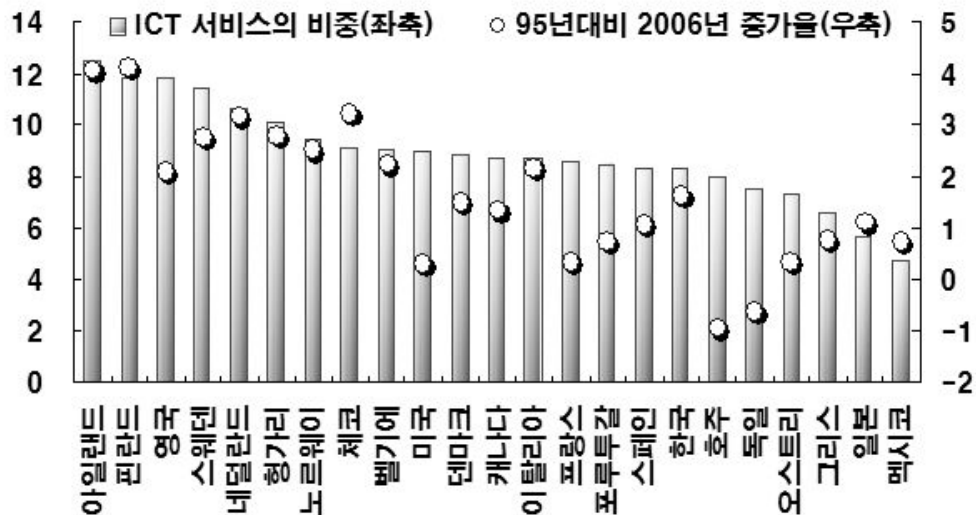
첫째, IT서비스업의 글로벌화가 미흡하다.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IT 제조업 부문에 세계적 수준의 한국 기업이 있는 것과 달리 IT 서비스업의 경우 한국 글로벌 기업은 없다. 실제로 Financial Times지는 2008년 브랜드 가치 기준으로 100대 기업 중 IT 서비스 기업으로 IBM(4위), HP(17위), SAP(19위), Oracle(25위), Accenture(43위) 등을 포함시켰다. 이 중 한국의 IT 서비스 기업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또한 Business Week지는 2008년 현재 세계 100대 IT 기업으로 LG 전자(20위), LG 디스플레이(26위), NHN(27위), 삼성전자(34위) 등 4개사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들 4개 기업은 모두 비 IT 서비스 기업이다.

또한 IT 서비스 수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이전 1% 미만을 보이던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2006년 이후 1%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2008년 1.3%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IT 서비스 기업의 매출이 수출보다는 내수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경제 기여도 미약

둘째, IT 서비스업의 경제 기여도가 미약하다. 한국의 총부가가치 중 ICT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증가한 속도는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총부가가치 중 ICT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OECD 23개 국가 중 17위를 기록했다. ICT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점유율의 1995년 대비 2006년도 증가율은 1.6%로 11위를 기록했다. 또한 IT 제조업 부문이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IT 서비스업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 폭 역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2006년도 IT 서비스 수출 규모는 2.4억 달러로 OECD 28개국(데이터가 없는 멕시코, 스위스 제외)

중 22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 규모는 7.7억 달러로 OECD 28개국 중 17위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2006년도 IT 서비스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는 5.3억 달러로 1995년의 0.7억 달러에 비해 7.7배 증가했다.



자료: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8,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그림 3] 2006년 부가가치에서 ICT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 3. 비효율성

셋째, IT 서비스업은 비효율적이다.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IT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낮으며, 전·후방 연쇄효과가 전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OECD IO Table(산업연관표)을 분석한 결과, IT 서비스업의 투입액 비중은 1995년 0.5%, 2000년 0.7%, 2005년 0.9%로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서 IT 서비스업의 활용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전산업 투입액에서 IT 서비스업의 투입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분석대상 19개국 중 1995년 15위, 2000년 16위, 2005년 14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lt;표 1&gt; OECD 국가별 IT 서비스업 투입 비중

	1995년		2000년		2005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룩셈부르크	0.7%	13	1.1%	12	3.5%	1
스웨덴	1.7%	1	3.0%	1	2.7%	2
덴마크	1.1%	4	2.4%	2	2.5%	3
영국	1.0%	6	2.1%	3	2.3%	4
오스트리아	0.9%	7	1.6%	6	1.8%	5
일본	1.6%	2	1.7%	5	1.7%	6
네덜란드	0.7%	10	1.5%	7	1.7%	7
이탈리아	1.0%	5	1.4%	8	1.6%	8
핀란드	0.7%	11	1.2%	10	1.5%	9
프랑스	1.4%	3	2.0%	4	1.4%	10
벨기에	0.7%	12	1.3%	9	1.3%	11
미국	0.8%	8	1.1%	11	1.1%	12
헝가리	0.8%	9	0.9%	13	1.1%	13
한국	0.5%	15	0.7%	16	0.9%	14
독일	0.6%	14	0.7%	15	0.8%	15
그리스	0.1%	18	0.9%	14	0.8%	16
포르투갈	0.3%	16	0.6%	18	0.7%	17
폴란드	0.0%	19	0.5%	19	0.7%	18
스페인	0.3%	17	0.6%	17	0.6%	19

자료 : OECD IO Table 1995, 2000, 2005,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IT 서비스업은 선도 산업의 유형 중 가장 낮은 산업에 해당한다. 산업은 전·후방연쇄효과와 크기에 따라 중간 수요적 제조업형, 최종 수요적 제조업형,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형,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형으로 구분된다. 중간 수요형 산업은 특정 산업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중간수요의 비중이 전산업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중간수요의 비중이 큰 산업이며, 최종 수요형 산업은 반대의 산업을 의미한다. 또한 제조업형 산업은 특정 산업의 총투입액에서 차지하는 중간투입액의 비중이 전산업 총투입액에서 차지하는 중간투입액의 비중보다 큰 산업을 의미하며, 원시산업형은 반대의 산업을 의미한다. IT 서비스업의 중간수요비는 1995년 53.2%, 2000년 21.4%, 2005년 28.8%를 기록했으며 1995년을 제외하고 전산업 중간수요비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IT 서비스업의 중간투입비 역시 1995년 62.1%, 2000년 58.9%, 2005년 53.6%를 기록했으며, 전산업 중간투입비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 IT 서비스업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전산업 평균에 못 미치는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4. 저생산성

넷째, IT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IT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기여도가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0~2005년 IT 서비스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은 0.54로 IT 제조업 1.47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고 있다.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기여도 격차는 1994~1999년도 0.68에서 2000~2005년도에는 0.93으로 확대되었다. IT 서비스업의 단위 임금당 생산액 역시 1995년 3.55, 2000년 2.39, 2005년 2.97로 전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2〉 단위 임금당 생산액 추이

	IT 서비스업	전산업
1995년도	3.55	4.68
2000년도	2.39	5.21
2005년도	2.97	5.21

주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III. 시사점

이와 같은 IT 서비스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대 정책 과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첫째, 수출 지원책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함으로써 IT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IT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화가 미흡한 것은 해외 진출의 유인이 부족하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IT 서비스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계열사 중심의 매출이 안정적이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유인이 없다. 또한 사업 관리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표준 지침서가 없다는 점도 IT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화를 뒤처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를 적극 활용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IT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에 맞는 IT 서비스 사업 표준 지침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IT 서비스 산업만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기관이 부재하여, IT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IT 서비스 전담 정책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IT 서비스 산업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며 업종별, 업무별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담당 부서의 부재로 IT 서비스 지원책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컨설팅 산업에 산재되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IT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IT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에 소프트웨어 관련 부서가 2개(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진흥과) 있으므로, 이 중 하나를 ‘IT 서비스 산업과(가칭)’로 전환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IT 서비스 산업의 대중소 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 기반이 미약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IT 서비스산업협회 내부 자료에 따르면 IT 서비스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대기업은 36개에 불과할 정도로 IT 서비스 산업은 영세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IT 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은 본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진흥에 편향되었다. 예를 들어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다. 이는 IT 서비스 중소기업의 공공 SW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M&A를 통한 대형화를 저해하고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IT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협력 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영세하여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M&A를 통해 한계 기업을 퇴출시키고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 IT 서비스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여, IT 서비스의 질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IT 서비스 수요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IT 서비스의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황종성(2009)은 대표적 IT 서비스 이용 산업인 서비스 산업의 영세성과 IT와 서비스업간 융합 관련 법·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IT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서비스 산업이 영세하여 재정적 여력이 없어 IT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U-City, U-Health 등 IT와 서비스업 간 융합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주택법 등 법·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IT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IT 서비스 활용 시 세금 우대 및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IT 서비스 활용에 대한 조세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야 할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IT 서비스의 범위를 지식관리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기간 역시 2009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IT 서비스 융합 기술의 상용화가 관련 법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광하, “산업연관분석론”, 1994.
- 이주량, “IT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 IT제조업에서 IT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2008
- 임상수, “불균형적인 IT 산업, IT 서비스업 육성하자”, 2009
- 한국 IT 서비스산업협회, “IT 기반 융합 기술(의료/IT의료융합 중심) 사업화 동향과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2009
- 황중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 2009
- EIU,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2007, 2008, 2009.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7-2008, 2008-2009